

'꿈의 풍경을 그리다' 밥장 기획전

완주군 명예군민 장석원 작가 일러스트 기획전 6월 30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서 개최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1전시관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장석원(밥장)의 명품 일러스트 기획전 '꿈을 그리는 소년 밥장'이 6월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완주군 명예군민인 장석원(밥장)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으로, '희망과 악몽, 미래와 트라우마, 기대와 후회, 선망과 그림자'라는 부제를 통해 꿈속에서 마주하는 듯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풀어낸다. 작품들은 보이는 세계 너머의 감정과 기억, 마음의 풍경을 담아 관람객 각자의 내면을 자연스럽게 비추도록 구성됐다.

전시에서는 밥장의 대표 일러스트 작품 90여 점을 소개하며,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나만의 일러스트 그리기', '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 등 체험 공간을 마련해 창작과 사유가 어우러지는 전시 콘텐츠를 선보인다. 전시 기간 중에는 작가 도슨트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밥장은 "새롭지 않다면 보여드릴 것도 많지 않다"며 "그림은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그림과 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잠시 일상의 속도를 늦추는 시간을 제안한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1전시관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장석원(밥장)의 명품 일러스트 기획전 '꿈을 그리는 소년 밥장'이 6월 30일까지 열린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삼례문화예술촌이 관람을 넘어 머무는 문화공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명품 전시와 콘텐츠로 체류형 문화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관에서는 지역

작가 광정우의 부재(不在) 시리즈(사람·책·드레스) 전시가 진행 중이며, 제4전시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천철석 소목장의 '나무의 결, 삶의 향기' 전시가 열려 전통 소목 기구의 미학과 장인정신을 선보이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시,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참가자 모집

남원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 광한루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96회 춘향제의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참가자를 2월 2일부터 오는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춘향의 가치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국적과 언어, 문화의 경계를 넘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의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이다.

특히 제96회 춘향제에서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를 주제로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춘향을 조명하고, 참가 대상과 무대를 국제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선발을 넘어 문화 교류형 콘텐츠로 운영해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해외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모집 요강은 남원시 누리집(www.namwon.go.kr)과 춘향제 공식 홈페이지(www.chunhyang.org)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회에서는 전통적 아름다움은 물론 춘향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 글로벌 감각과 소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남원시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돼 국내·외 문화행사 참여와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춘향의 멋과 정신을 세계 무대에서 함께 펼쳐갈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예술로 여는 봄, 하안양옥집 입춘첩 나눔'

전북문화관광재단, 3~4일 도민 안녕 기원 무료 증정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월 3일부터 4일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도민 문화공간 '하안양옥집'과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예술로 여는 봄, 하안양옥집 입춘첩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입춘첩은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아 '입춘대길 건양대경' 등 복을 기원하는 문구를 대문이나 기둥에 붙이는 전통 세시풍속으로, 이번 행사는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서백 송민호 작가를 비롯한 전북 지역 문인 화가와 서예가 7인이 참여해 현장에서 입춘첩 제작 시연을 선보이며, 방문객에게 완성된 입춘첩을 무료로 증정한다.

행사 일정은 3일 하안양옥집 오후 1시~5시, 4일 전북자치도청 로비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예술인들의 정성이 담긴 입춘첩이 도민 가정에 행복의 기운을 불러오는 따뜻한 봄바람이 되길 바란다"며 "하안양옥집이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호흡하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재단은 올해 하안양옥집을 도민 밀착형 문화거점으로 육성하고, 기획전시와 협력 전시, 시·존별 테마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



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jct.or.kr)과 공식 SNS(인스타그램 new.jct.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예술회관운영팀(063-230-4231)으로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자원활동가 '지프지기' 모집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제 현장을 함께 만들어갈 자원활동가 '지프지기'를 오는 5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조직위에 따르면, 지프지기는 전주국제영화제 전 일정에 참여해 상영관 운영과 행사 진행 등 영화제 전반을 지원하는 자원활동가다.

모집은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모집과 만 40세 이상이 지원 가능한 시니어 모집

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재외동포와 국내 거주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한국영화팀과 해외영화팀, 홍보 미디어팀, 전주프로젝트팀, 마케팅팀, 관객서비스팀, 씨네타워팀, 기획운영실, 기술팀, 운영팀,

초청팀 등 11개 팀 19개 파트로, 총 4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은 일반 모집의 경우 지프지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시니어 모집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게시된 이력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3월 4일 오후 4시에 마감되며, 이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3월 25일 오후 4시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김재훈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17일 설 기획공연 '설馬설馬'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17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연당에서 새해 설 기획공연 '설馬설馬'를 개최한다.

설馬설馬는 설날(구정)의 정취와 새해의 다짐을 전통예술 무대로 풀어낸 설맞이 가족 국악 한마당으로, 무용·민요·기악·연희를 한 데 엮고, 탄탄창교실 수료 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무대를 더해 세대가 함께 즐기며 명절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구성했다.

1부는 '춤 노래로 땅을 깨우다'를 주제로 '연고부'와 민요 '동백타령'으로 문을 열고, 2부 '우리의 미래를 밝히다'에서는 탄탄창교실 수료생들이 부르는 민요 '널뛰기'와 국악동

요 '십이지 동물과 열쑤', 동요 '떡국송'에 이어, 기악 3중주 '일청'으로 공연이 분위기를 돋우며, 3부 '하늘의 기운을 받다'에서는 '호남검무'와 '판굿'으로 한해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무대로 마무리된다.

공연 당일에는 설을 맞아 14:00~14:50까지 예연당 로비에서 '새해 다짐 캘리그라피로 나만의 팸플릿 만들기'를 진행하며, '새해 운세 뽑기'가 공연 종료 후 이어질 예정이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 또는 전화(063-620-2329)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과 창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쯤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국 문화재청 제공)